

도·농 복합지역 송천2동 발전 비전 공유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 실시... 시정 운영방향 설명·주민 의견 청취

우범기 전주시장이 전주의 위대한 도약과 대변역을 위해 도·농 복합지역이자 친환경 생태도시 개발이 계획된 송천2동을 찾아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우범기 시장은 9일 전주용소중학교 강당에서 송천2동 주민과 시의원, 자생단체회원, 유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실시했다.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동 현황 보고와 시정 운영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 시장이 방문한 송천2동은 도심과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 동으로, 현재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과 생태환경이 우수한 백석저수지 주변 개발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전주의 대변역을 이룰 거점지역 중 한곳으로 손꼽힌다.



우범기 시장은 9일 전주용소중학교 강당에서 송천2동 주민과 시의원, 자생단체회원, 유관기관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시민과 함께하는 동 순방'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민선 8기 시장의 '도·농 복합지역의 대변역'과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와 전주의 대변역을 앞장서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과 공유했다.

또한 이날 시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전미동 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백석저수지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 △백석저수지 친환경개발 △농촌마을 도시가스 공급 등 송천2동 주민들의 관심사에 격의 없는 소통이 이어졌다.

시는 이날 시민들이 건의한 불편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추진하거나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가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오늘 건의하신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살기 좋은 송천2동이 더욱 발전해 전주의 대변역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 선정

전주자원봉사센터, 시상식 열고 7명에 전주시장 표창 수여

평소 사람과 나눔의 자원봉사를 실천해온 전주시민 7명이 '전주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자원봉사센터(이 사장 최이현)는 9일 전주시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 4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5명과 청소년 2명 총 7명의 자원봉사자에게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시정 운영방향 설명, 시민과의 대화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우 시장이 방문한 송천2동은 도심과 농촌이 어우러진 도·농 복합 동으로, 현재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과 생태환경이 우수한 백석저수지 주변 개발 사업 등이 예정돼 있어 전주의 대변역을 이룰 거점지역 중 한곳으로 손꼽힌다.

봉사활동을 해온 완산구해바라기 봉사단 소속 정문자 씨(70, 여) △지역아동들을 위한 제과제빵 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전주연탄은행 소망봉사단 소속 송강 씨(51, 여) △지역아동들을 위한 제과제빵 나눔 봉사에 꾸준한 활동을 해온 행복나눔봉사단 소속 정화옥 씨(68, 여)가 선정됐다.

또한 청소년 부문에서는 (사)한동문화예술단 공연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동운 군(전일고등학교)과 곰솔나무작은도서관에서 도서정리 및 운영보조 활동을 해온 김성현 군(전일고등학교)이 시장 표창을 받았다.

최이현 전주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하며 함께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종합 환경정비로 쾌적한 완산구 만든다

새봄맞이 청소환경·하천·공원·도로·가로정비분야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가 봄철을 맞아 대대적인 환경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완산구는 동절기 한파 등으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 정비하고, 도시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기 위해 봄맞이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하천 및 공원분야의 경우 구는 시민들에게 건강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절기 동안 쌓인 하천 내 쓰레기를 정비하고, 하천 주변 제초 및 유수 지장 수목 제거작업을 실시한다.

또, 육교와 지하보도, 터널 등과 같은 관내 도로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로미관을 해칠 수 있는 도로와 인도의 잡풀 등도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23년도 한국건강관리협회 학술연구지원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학술연구 분야 활성화와 보건 의료 및 감염병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공모 과제는 총 5편(지정주제 2편, 자유주제 3편)으로, 접수기간은 지난 8일부터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다.

특히 구는 공원과 등산로, 하천 주변에 설치된 운동기구와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설물 보수·교체를 추진하는 등 하천 및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동절기 도로 곳곳에 발생한 포트홀을 비롯해 노후도로와 인도 등을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도로분야 환경관리에도 집중한다.

또, 육교와 지하보도, 터널 등과 같은 관내 도로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로미관을 해칠 수 있는 도로와 인도의 잡풀 등도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또, 육교와 지하보도, 터널 등과 같은 관내 도로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도로미관을 해칠 수 있는 도로와 인도의 잡풀 등도 공공근로 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지정주제는 보건 의료분야(건강검진 종합소견 제공 모델링 개발에 관한 연구) 1편과, 감염병관리분야(환경 내 인수공통 감염 병원체 감염실태 조사 연구) 1편으로 나뉜다.

자유주제 3편은 건강검진에서 활용 가능한 보건 의료 관련 연구주제, 방법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제출자료는 연구 제안서 및 계획서 각 1부를 양식에 따라 이메일로 접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정규 연구인력'이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건협 홈페이지(www.kahp.or.kr)에 공지되어 있으며, 관련 문의는 건협 메디체크연구소(02-2600-0186)로 하면 된다.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찰은 위험한 범죄 현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가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어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건이 발생해(완산구 1건) 가해자 중 6명(60%)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에 화제인입, 인명구조, 구급 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영태 기자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찰은 위험한 범죄 현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가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어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건이 발생해(완산구 1건) 가해자 중 6명(60%)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에 화제인입, 인명구조, 구급 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영태 기자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경찰은 위험한 범죄 현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해가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구급대원 폭언·폭행은 범죄입니다"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 금지 당부·따뜻한 격려 부탁

김장수 전주완산소방서장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피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어 구급대원 폭언·폭행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10건이 발생해(완산구 1건) 가해자 중 6명(60%)은 음주 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에 화제인입, 인명구조, 구급 활동 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영태 기자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 치안현장 찾아 직원 격려

업무유공자 두화영 순경 포상 수여·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김태형 전주덕진경찰서장은 9일 술내파출소 치안현장을 찾아 업무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하고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태형 서장은 심야에 음주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음주 피의자를 끝까지 추격해 검거한 업무 유공자 두화영 순경에 대한 즉상을 수여했다.

김영태 기자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